법장 '기신론의기'에 담긴 것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 3대소 가운데 현수법장(賢首法藏, 643~712)의 〈기신론의기〉는 본문의 글을 따라 뜻을 풀이하는 축문해석(逐文解釋)이 잘 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법장은 화엄사상의 완성자로 불후의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가 화엄사상을 완성하기까지는 기신론 연구에서부터 시작한 대승사상을 종합·회통한 탁월한 안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그의 소 서문에 밝힌 진심(眞心)에 대한 설명은 그대로 화엄의 법성(法性) 이야기이다.

"무릇 진심은 비워 툭 터져서 무어라 파악할 수 없는, 말이 끊어진 것이며, 고요하고 흔적이 없어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망각되고,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生)·주(住)·이(異)·멸(滅)의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고 감이 없어 과거·현재·미래를 통하여 바뀌지는 법이 없다."

기신론은 대승의 여러 경전, 곧 능가경이나 능엄경, 해심밀경,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등 여러 경전들의 내용을 포섭해 있으면서도 법장에 있어서는 화엄사상을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논서라는 점이다.

법장은 16세에 법문사 사리탑 앞에서 연비공양을 한 후 불법을 깨닫고자 맹세한 다음 해에 태백산(太白山)으로 들어갔다. 그 후 운화사(雲華寺)에서 지엄(智儼)의 화엄경 강의를 듣고 지엄 문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엄과 법장이 만난 인연에 대하여 법장의 비문에는 '물을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 붓듯 하고, 우유에 물을 섞듯이 조화를 이루는 인연'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엄 문하에서 우리나라의 의상과 함께 동문수학을 한 인연도 있다.

이후 법장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스승을 따라 수학한 것과는 달리 오로지 지엄, 한 사람만을 평생의 스승으로 삼았다. 법장이 스님이 된 해는 지엄이 입적하고 난 2년 뒤이다. 지엄이 도성(道成)과 박진(薄塵) 두 대덕에게 법장의 장래를 부탁한 일로 인하여 지엄이 입적한 후 측천무후가 어머니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은 태원사(太原寺)에서 스님이 되었다. 그 후 다시 구족계를 받고 측천무후로부터 현수(賢首)라는 호를 하사 받았다.

현수는 화엄 3조로 화엄사상을 완성하고 화엄경을 강론하기를 30여 회나 했다고 한다. 그가 화엄경을 강설할 때는 여러 차례 상서가 있었다 한다. 운화

화엄 사상의 완성자로 명성

소 서문에도 화엄 法性 담아

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할 적에는 그의 입에서 빛이 나와 천개(天蓋)가 되어 공중에 머물렀고, 십지품을 강론할 때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오색의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고 한다.

실차난타가 80권 화엄경을 번역할 때에는 필수(筆受)를 맡아 참여하였고 번역이 완성된 후에는 측천무후의 요청으로 궁궐 안의 장생전(長生殿)에서 80화엄을 강론하였다. 이때 강의를 들은 무후가 심오한 화엄세가 어려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때마침 궁전 한 구석에 놓여 있던 금사자상을 예로 들어 화엄교의인 이사(理事)와 십현육상(十玄六相)의 이치를 설명하여 무후를 이해시켰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때 금사자상을 비유해 설명한 강의는 후에 저술된 〈탐현기(探玄記)〉 안에 '금사자장(金獅子章)'으로 남아 있다.

현수는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선열로 밥을 삼고 살았다 한다. 우리나라 원효와 의상을 존경했으며, 그의 〈기신론의기〉에는 원효가 쓴 해동소의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의 기신론 의기 서문에는 대·소승의 일체 경론을 종취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한 5종 설명이 있다. ①아함경 등 소승의 재부 경론을 수상법집종(隨相法執宗)이라 하였고 ②반야경 등과 용수(龍樹), 제바(提婆) 등의 논을 진공무상종(眞空無相宗), ③해심밀경 등과 유식론 등 무착 세친이 지은 논서들을 유식법상종(唯識法相宗), ③능가경과 마명의 기신론 등을 여래장연기종(如來藏緣起宗), ⑤화엄경을 원륭구덕종(圓融具德宗)이라 하였다.

중생 구제의 마음이 곧 보살심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㊸ 선정을 닦는 마음이란

菩薩入救眾生禪極樂心相應無盡寶藏自然而出。一切乞者自然而至。善丈夫者能以財物大施乞者。乞者得財物已亦行大施。菩薩能以財物施於眾生使其富足。以等悲心。聞乞者聲為之雨淚。乞者見菩薩雨淚。雖不言與當知必得。菩薩見乞者來時極生悲苦。乞者得財物時心生歡喜得滅悲苦。菩薩聞乞言時悲泣墮淚不能自止。乞者言足爾時方止。菩薩修行種種施已眾生滿足。便入山林修行禪定。云何滅除諸眾生三毒苦患。菩薩財物倍多無乞者可施。我今何為守之而住。今當捨之出家。(보살입구중생선극락심상응무진보장자연이출。일체걸자자연이지。선장부자능이재물대시걸자。걸자득재물이역행대시。보살능이재물시어중생사기부족。이등비심。문걸자성위지우루。걸자견보살우루。수불언여당지필득。보살견걸자래시극생비고。걸자득재물시심생환희득멸비고。보살문걸언시비읍타루불능자지。걸자언족이시방지。보살수행종종시이중생만족。변입산림수행선정。운하멸제제중생삼독고환。보살재물배다무걸자가시。아금하위수지이주。금당사지출가。)

번역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려 선정의 극락에 드는 마음은 한량없는 보배의 창고와 상응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나니, 일체의 구걸하는 이가 자연스럽게 도착합니다. 선한 대장부는 능히 재물로써 구걸하는 이에게 크게 보시하나니, 구걸하는 이가 재물을 이미 얻었더라도 역시 크게 보시합니다. 보살은 능히 재물로써 중생에게 보시하되, 부유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평등한 자비심을 구걸하는 이가 들으면 비처럼 눈물을 흘리며, 구걸하는 이가 보살을 보고 비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보살은 구걸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비심으로 우나니,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게 눈물을 떨구거니와 구걸하는 이가 만족했을 때에야 바야흐로 그치게 됩니다. 보살이 가지가지 보시의 수행을 마치고 중생이 만족하게 되면 문득, 산림에 들어가 선정을 닦습니다. "어찌하면 모든 중생의 삼독(三毒)과 괴로움을 제거할까" 합니다. 보살은 재물이 배나 많고 구걸하는 이가 없어도 보시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지키며 안주하리오" 하며 지금 당장에 희사하고 출가를 합니다.

해설

80화엄경에서는 9회의 설법 장소가 나온다. 각각의 설법 장소에서는 세존께서 정각을 이루신후 연화장사자좌에 앉아 발광(發光)을 하게 되는데, 삼천대천의 미진수 세계를 밝히신다. 그때 세존의 곁에는 티끌 수의 보살마하살들이 부처님을 위요(圍繞)하고, 각각 선정에 드는 장관이 묘사되어 있다.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이던가. 이에 대해 제바라보살은 〈대장부론〉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였다. 어찌하면 중생들이 몸으로 짓는 악업과, 입으로 짓는 악업과, 뜻으로 짓는 악업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였다. 수행자가 자신만을 위한 선정의 열락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으로 인한 온갖 고통을 제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고 보면, 〈화엄경〉에서 부처님도 미진수 보살마하살들도 선정에 들어 부처님을 찬탄하고, 중생을 위한 법문을 열었다. 선정은 단지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포교임을 알려주고 있다.

보살이 선정의 열락에 드는 것은 마치 보물이 가득한 곳간에 드는 것과 상응한다고 하였다. 부자가 보물이 가득한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를 구제하듯이, 선정은 중생의 삶에 괴로움을 주는 독을 없애는 보물창고를 여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살의 원력에 어떤 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리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孝經과 일기장

유가(儒家)의 주요 13경 중에 독특하게 책 이름에 경(經)을 붙힌 유일한 책이 〈효경(孝經)〉이다. 〈효경〉에 담겨있는 이야기 하나 옮겨야겠다.

아미산 자락의 외진 마을에는 덕보라는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다. 듣는 소문에 아미산에는 무제라는 산신령이 있어 지극 정성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면 무제보살이 나타나 소원 성취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하여, 가난한 청년 덕보는 아미산의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 아미산 계곡을 오르게 된다.

산신령을 만나지 못하고 해질 무렵 지쳐 헤매는 덕보 앞에 웬 노인이 나타나 말을 걸어온다. "날도 저물어 가는데 젊은이는 무슨 일로 아미산의 깊은 계곡을 오르는 거요?"

덕보는 범상치 않은 노인의 용모와 점잖은 말투에 기가 죽어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아미산의 산신령인 무제보살을 만나기 위해 헤매고 있습니다."

아들 걱정에 짚신 뒤집고 달린 어머니
아미산의 무제보살은 바로 옆에 있다

"산신령을 만나면 무슨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요?"

덕보는 당황하여 평상시의 바람을 말하였다. "홀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시어 가정이 행복한 나날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무제보살을 만나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온다. 덕보는 꼭 뵙고 싶다고 답변한다. 노인은 조용한 어조로 힘주어 말씀한다.

"더 이상 아미산을 헤매지 말고 곧장 오던 길로 되돌아가 고향으로 향하시오. 비록 밤길이 어두우나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을 반드시 만날터니 그 사람이 곧 무제보살임을 알아차려 그분의 뜻을 따르면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요." 덕보는 노인의 말씀대로 하산을 서두르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마다 짚신을 거꾸로 신은 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는 자를 찾을 수 없었다.

깊은 밤 홀어머니가 계신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싸리대문을 열어 달라고 어머니를 큰소리로 불러댔다. 그때 싸리대문을 열어주는 어머니는 짚신을 거꾸로 신고 있었다. 깊은 밤까지 집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울 밖에서 부르는 어머니 찾는 소리에 너무도 기뻐 서둘러 나오느라 짚신을 거꾸로 신고 대문 쪽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아들의 어머니 부르는 소리에 단숨에 달려와 싸리대문을 여는 짚신을 거꾸로 신은 어머니. 덕보는 순간 마음이 환히 열렸다. 그토록 뵙고 싶었던 아미산의 산신령인 무제보살이 자신의 어머니, 짚신을 거꾸로 신은 어머니였던 것이다. 아미산의 산신령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싸리울안의 가까이 계신 홀어머니였던 것이다.

마음이 열린 덕보는 진리는 멀고 높고 깊은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주변에 드러나 있고 널려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유와 행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느끼며 누리는 데 그 생명력이 있었던 것이다.

자, 이번엔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 2013년 12월 26일의 사자암 주지 일기장에 담겨있는 산신령의 답장을 소개하겠다. 하늘과 땅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게.

"사자암의 삼성각에는 불전함이 있는데요. 불전함에는 한 달에 두 차례 쯤 누군가 와서 1백원짜리 동전 일곱 개씩 넣고 가는데요. 5백원짜리 7개면 시골 장터에서 짜장면 한 그릇도 먹을 수 있고 황금 잉어빵이랑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1백원짜리 7개로는 돈 보태서 사야지요. 하여, 영험 있다는 미륵산 산신령에게 부탁 말씀드렸지요. 이왕이면 1백원짜리 동전 7개 보다는 내친김에 5백원짜리 동전 7개가 불전함에 담기도록 은근 슬쩍 얼굴 두터운 바램을 담아 말씀드렸지요. 끄떡하면 라면값, 초코파이 값도 오르고 있으니 1백원짜리 동전 7개 보다는 5백원짜리 동전 7개가 불전함 속에 버티고 있길 희망한다며 능청떨며 가당찮게 속마음을 펼쳐 보였죠. 그런데 오늘 아침 삼성각의 불전함에는 1백원짜리 동전 7개와 산신령의 답장이 부처님의 회초리로 담겨 있었지요.

'저희 둘째 아이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 차례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용돈을 아껴 1백원짜리 동전 7개가 모아지면 아이의 뜻대로 아이의 마음을 담아 산신님, 칠성님께 올립니다. 부처님, 이 아이의 건강을 살펴주소서.'"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